

〈Brief Report〉

## Self-conscious Negative Emotions and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with Alcohol Disorders\*

Yonggi Pyeon

Sungeun You<sup>†</sup>

Seungbo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self-conscious negative emotions in suicidal behaviors among adults with alcohol disorder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residential alcohol treatment centers and hospitals. All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s of lifetime history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ndicated that depressive symptom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time history of suicidal ideation while alcohol-related problem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time history of suicide attempt in a multivariate model including sociodemographic risk factors, psychiatric symptoms, and eleven distinct emotion factors. Among emotion factors, only 'hostility-inwar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time history of suicidal attemp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critical role of self-hate or hostile affect toward the self in suicide attempt in adults with alcohol disorders.

*Keywords: suicide, suicide attempt, self-conscious negative emotions, hostility-inward, alcohol disorders*

---

\* This article is taken in part from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Yonggi Pye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Sungeun Yo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8644)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Tel: 043-261-3612, Fax: 043-269-2188, E-mail: syou@chungbuk.ac.kr

알코올 장애는 기분장애와 더불어 자살 및 자살 행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정신과적 장애 중 하나이다(Hirokawa et al., 2012; Hufford, 2001; Modesto-Lowe, Brooks, & Ghani, 2006; Nock et al., 2008). 특히 알코올 장애와 같은 물질 관련 장애와 우울장애가 공병하는 경우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Conner et al., 2013; Sher, 2006). 이처럼 알코올 장애군은 자살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 장애군 내에서 이들의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지 않다. Hufford(2001)는 Baumeister(1990)의 자기도피이론을 통해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행동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였다. 자기도피이론에서는 개인의 기대 수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자기비난,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자살 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자살에 있어서 복합적인 부정정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Shneidman(1993)의 주장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다.

정서와 자살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드물지만 연구자들은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적대감과 같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와 자살 행동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자살 시도자들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자살 시도자들은 수치심, 내부 적대감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erall, Bostik, & Paulson, 2006). 하지만 자살 행동과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임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소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들의 중노년기 자살 시도는 낮은 긍정정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Seidlitz, Conwell, Duberstein, Cox, & Denniong, 2001) 여

성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경우 수치심이 이들의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었다(Wiklander et al., 2012). 일부 연구자들은 외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 및 PTSD 증상을 통제한 후 이들의 자살 생각과 자의식적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기 성 학대 경험이 있는 우울증 여성 환자집단에서는 슬픔,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적대감이 이들의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You, Talbot, He, & Conner, 2012), 참전 군인들의 자살 생각은 죄책감, 수치심과 관련이 있었다(Bryan, Morrow, Etienne, & Ray-Sannerud, 2013).

본 연구는 알코올 장애군 내에서의 자살 행동에 기여하는 개별 정서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정신과적 증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남성, 낮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독거상태, 무직상태 등, Modesto-Lowe et al., 2006; Pirkola, Suominen, & Isometsä, 2004; Preuss et al., 2002; Sher, 2006)들과 개별 정서요인들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별 정서 요인들 중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적대감 등의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정신과적 증상과 다른 정서 요인들을 상호 통제된 후에도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북 및 대전 소재 알코올

전문병원과 알코올 전문센터 기관의 승인 하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문제음주 선별도구(AUDIT; Saunders, Aasland, Babor, Fuente, & Grant, 1993) 실시 결과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선별기준(12점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286명 중 34명이 AUDIT 점수 12점 미만으로 제외되었다. 추가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자 17명, 중도 탈락자 14명, 질문지 문항의 이해와 응답 반응이 현저하게 느려 인지적 문제가 시사되는 2명, 치매 환자 1명, 지적 장애인 1명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217부로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 186명(85.7%)과 외래환자 4명(1.8%), 알코올 전문 센터 이용자 27명(12.5%)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 198명(91.2%), 여자 18명(8.3%), 성별을 보고하지 않은 1명(0.5%)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51.04세(SD = 10.04), 연령범위는 24세부터 81세까지였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 측정도구

##### 차별적 정서 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차별적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는 총 36문항으로 열두 개의 개별 정서경험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Lee, Kim과 You(2012)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번안 타당화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47로 낮게 나타난 놀람 변인을 제외한 열 한 개의 정

서요인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57-.80으로 흥미(.57)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문제음주 선별도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문제음주 선별 도구(AUDIT; Saunders et al., 1993)는 문제음주를 선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음주의 양과 음주행태, 알코올 의존증상, 음주관련 문제의 유무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199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 연구결과 AUDIT 점수 12점 이상은 문제음주, 15점 이상은 알코올 사용 장애, 26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집단을 선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선별도구 실시 결과 12점 이상인 사람만을 포함하였다.

#####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증 선별도구(PHQ-9; Spitzer, Kroenke, & Williams, 1999)는 아홉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최근 2주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i 등(2007)이 국내에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살 행동을 측정하는 9번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의 합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Choi 등(2007)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도 .85, 분석에 사용한 8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였다.

### 자살 행동

자살 행동의 측정은 미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역학연구(Kessler, Borges, & Walters, 1999)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Lee(2012)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력을 자살 행동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자살 생각은 ‘자살을 하려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 시도는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자살 시도 횟수를 묻는 질문에 추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생각 및 시도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한 준거 집단, 자살 시도를 동반하지 않은 자살 생각 집단, 자살 시도 집단의 세 개의 상호배제적인 집단을 각각 0, 1, 2로 더미코딩하여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 생각은 우울증상 심각도(OR = 3.33, 95% CI = 1.43-7.75,  $p < .01$ )가, 자살 시도는 문제음주 심각도(OR = 2.10, 95% CI = 1.17-3.76,  $p < .05$ )와 내부적대감(OR = 3.75, 95% CI = 1.65-8.52,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중다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 결 과

본 연구 참여자 217명 중 자살 생각 및 시도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71명(32.7%), 자살 생각은 해 보았으나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9명(13.4%),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53.9%)이었다. 자살 시도력이 있었던 사람들 중 두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명(59.5%)이었다. 열 한 개의 정서요인과 자살 생각 및 시도 유무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흥미와 즐거움을 제외한 아홉 개의 정서요인에 대한 개별 상관관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r = .28-.43$ ,  $p < .01$ ).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자의식적 정서의 경우 내부적대감( $r = .43$ ,  $p < .01$ ), 수치심( $r = .35$ ,  $p < .01$ ), 죄책감( $r = .31$ ,  $p < .01$ ), 수줍음( $r = .30$ ,  $p < .01$ ) 순으로 자살 행동 유무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중다 회귀분석을 위해 자살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인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행동과 관련된 정서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알코올 전문 병원 및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장애군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정신과적 위험요인과 열 한 개의 개별 정서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문제음주 심각도와 내부적대감(‘hostility-inward’)이 이들의 자살 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자살 시도를 동반하지 않은 자살 생각은 우울증상 심각도만이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예상과 달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등의 자의식적 정서는 이들의 자살 생각 및 시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이들이 모두 자살 행동 유무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부정 정서경험들 중 자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정서가 이들의 자살 위험과 연

Table 1  
*Multivariat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with Alcohol Disorders (N = 217)*

	Suicidal ideation (n = 29)		Suicidal attempt (n = 117)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s				
Age	0.950	0.897-1.007	0.982	0.942-1.024
Men	3.096	0.342-28.008	1.177	0.252-5.502
Women	1.000	-	1.000	-
Living alone	0.453	0.132-1.551	2.174	0.935-5.555
Education ≤12	3.151	0.753-13.188	1.553	0.596-4.047
Education >12	1.000	-	1.000	-
Unemployed	1.039	0.293-3.681	0.532	0.212-1.338
Psychiatric symptoms				
PHQ-9*	3.330**	1.430-7.755	1.285	0.671-2.461
AUDIT	1.488	0.661-3.346	2.101*	1.172-3.764
DES-IV				
Interest	1.125	0.453-2.796	1.139	0.571-2.274
Enjoyment	1.663	0.684-4.040	1.439	0.725-2.857
Sadness	2.059	0.719-5.596	1.050	0.494-2.232
Anger	1.135	0.527-2.444	0.860	0.472-1.567
Disgust	0.942	0.343-2.587	1.337	0.641-2.791
Contempt	0.720	0.248-2.089	1.853	0.805-4.267
Fear	0.486	0.212-1.118	0.917	0.497-1.689
Guilt	0.524	0.221-1.244	1.177	0.600-2.310
Shame	1.955	0.653-3.346	1.278	0.579-2.822
Shyness	1.678	0.594-4.743	0.443	0.192-1.022
Hostility-inward	2.128	0.755-5.995	3.754**	1.653-8.524

Note. OR = Odds Ratio; 95% CI = Confidence Interval;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UDIT =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DES-IV =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PHQ-9 scores were calculated by summing eight items excluding the suicidal item.

\*p < .05. \*\*p < .01.

관되어 있는 핵심 정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생각은 우울 공병 상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들의 자살 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코올 장애 심각도를 완화시키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 및 자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정서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알코올 장애군 중 절반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었던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Jeon et al., 2010)에서 자살 시도률이 3.2%로 나타난 것에 비해 약 16배 이상 높다. 이는 문제음주집단의 자살 시도률이 일반인의 10배라는 국내외 선행 연구(Kwon & Hyun, 2014; Wilcox, Conner, & Caine, 2004)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알코올 장애군에서는 자살 생각을 해 보았으나 자살 시도는 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자살 시도를 한 경우보다 현저히 적었다. 통상적으로는 그 반대, 즉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으나 자살 시도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알코올 장애군의 경우 자살 생각이 시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진단 정보가 부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 전문 병원 및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알코올 장애군으로 정의하였다. 병원환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알코올 관련 장애 진단이 있는 환자이지만 구체적인 진단 정보나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 당시 알코올 전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들 중

AUDIT 점수를 기준으로 문제음주 절단점 이상인 사람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단정보 부재로 인한 동질성 문제를 보완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적 정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12)의 타당화 연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임상 집단의 특성인지 알코올 장애군의 특성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임상집단에서의 정서경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 설계로 자살 행동과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자살 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자살고위험군 내에서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를 구분 짓는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내부적대감이 정신과적 증상과 인구통계학적 위험요인들을 함께 통제한 경우에도 이들의 자살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내부적대감’에 기여하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탐색하고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증진시키는 임상적 개입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ryan, C. J., Morrow, C. E., Etienne, N., & Ray-Sannerud, B. (2013). Guilt, shame, and suicidal ideation in a military outpatient clinical sample. *Depression and Anxiety*, 30,

- 55-60.
- Choi, H. S., Choi, J. H., Park, K. H., Joo, K. J., Ga, H., Ko, H. J., & Kim, S. R. (200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8, 114-119.
- Conner, K. R., Bohnert, A. S., McCarthy, J. F., Valenstein, M., Bossarte, R., Ignacio, R., ... & Ilgen, M. A. (2013). Mental disorder comorbidity and suicide among 2.96 million men receiving care in the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health syste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 256-263.
- Everall, R. D., Bostik, K. E., & Paulson, B. L. (2006). Being in the safety zone emotional experiences of suicidal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 370-392.
- Hirokawa, S., Kawakami, N., Matsumoto, T., Inagaki, A., Eguchi, N., Tsuchiya, M., ... & Takeshima, T. (2012). Mental disorders and suicide in Japan: A nation-wide psychological autopsy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0, 168-175.
- Hufford, M. R. (2001). Alcohol and suicid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797-811.
- Izard, C. E., Libero, D. Z., Putnam, P., & Haynes, O. M. (1993). Stability of emotion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 to trait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47-860.
- Jeon, H. J., Lee, J. Y., Lee, Y. M., Hong, J. P., Won, S. H., Cho, S. J., ... & Cho, M. J. (2010). Unplanned versus planned suicide attempters, precipitants, methods, and an association with mental disorders in a Korea-bas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7, 274-280.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17-626.
- Kim, J. S., (1998). Understanding of recovery process of patients with alcoholism.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19, 304-312.
- Kim, J. S., Oh, M. K., Park, B. K., Lee, M. K., Kim, G. J., & Oh, J. K. (1999). Screening criteria of alcoholism by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0, 1152-1159.
- Kwon, Y. S., & Hyun, M. H. (2014).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self-control, hopelessness,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 and suicidal ideation in alcohol use disorde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19, 585-605.
- Lee, S. H. (2012). *Alexithymia and anhedonia in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Lee, S. H., Kim, B. M., & You, S. (2012). Validat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s-IV (DES-IV) in a Korean popul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 147-167.
- Modesto-Lowe, V., Brooks, D., & Ghani, M., (2006). Alcohol dependence and suicidal behavior: From research to clinical challenges.

-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4, 241-248.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 R. C., & Lee, S. (2008).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 133-154.
- Pirkola, S. P., Suominen, K., & Isometsä, E. T. (2004). Suicide in alcohol-dependent individuals: Epidemiology and management. *CNS Drugs*, 18, 423-436.
- Preuss, U. W., Schuckit, M. A., Smith, T. L., Danko, G. P., Buckman, K., Bierut, L., ... & Reich, T. (2002). Comparison of 3190 alcohol dependent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suicide attempt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6, 471-477.
- Saunders, J. B., Aasland, O. G., Babor, T. F., de la Fuente, J. R., & Grant, M. (1993). Development of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WHO collaborative project on early detection of persons with harmful alcohol consumption II. *Addiction*, 88, 791-804.
- Saidlitz, L., Conwell, Y., Duberstein, P., Cox, C., & Denning, D. (2001). Emotion traits in older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6, 123-131.
- Sher, L. (2006). Alcoholism and suicidal behavior: A clinical overview.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3, 13-22.
- Shneidman, E. S. (1993). Some controversies in suicidology: Toward a mentalistic disciplin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292-298.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 1737-1744.
- Wiklander, M., Samuelsson, M., Jokinen, J., Nilsson, Å., Wilczek, A., Rylander, G., & Asberg, M. (2012). Shame-proneness in attempted suicide patients. *BMC Psychiatry*, 12, 1-9.
- Wilcox, H. C., Conner, K. R., & Caine, E. D. (2004). Association of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nd completed suicide: An empirical review of cohort studi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6, S11-S19.
- You, S., Talbot, N. L., He, H., & Conner, K. R. (2012). Emotion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depressed women with childhood sexual abuse histori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2, 244-254.

Received July 30, 2015

Revised January 1, 2016

Accepted January 11, 2016



## 알코올 장애군의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자살 행동의 관계

편 용 기                      유 성 은                      이 승 복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행동과 자의식적 부정정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치심, 내부적대감과 같은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우울 심각도, 문제음주 심각도, 긍정정서 및 기타 부정정서들을 함께 통제한 후에도 이들의 자살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알코올 전문 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와 알코올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정서척도(DES-IV), 우울증 선별도구(PHQ-9), 문제음주 선별도구(AUDIT)와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력을 묻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를 자살 생각 및 시도력이 없는 준거 집단, 자살 생각 집단, 자살 시도 집단의 세 개의 상호배제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항 로지스틱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생각은 우울증상 심각도가, 이들의 자살 시도는 문제음주 심각도와 자의식적 부정정서 중 내부적대감이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 장애군의 자살 생각은 우울장애 공병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임상적 개입이 이들의 자살 시도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자살, 자살 시도, 자의식적 부정정서, 내부적대감, 알코올 장애군